

꾸준한 교육투자 강진이 달라졌다

강진군의 교육환경이 강진 군민장학재단의 꾸준한 교육투자 등으로 인해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불과 4~5년 전만 해도 강진지역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수도권 지역보다 훨씬 뒤떨어진 교육현실 때문이었다. 또한 당시에는 강진 관내 5개 고등학교 역시 고질적인 정원 미달사태로 강진 관내에서 1개의 고등학교라도 정상적으로 육성 하자는 취지에서 고교 통·폐합 논의가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현재는 정원 미달로 문을 닫아야 할 쳐지었던 지역 모든 고등학교가 정원을 채웠고 강진고는 지난 2006학년도에 서둘대 학급자를 첫 배출한 이후 4년 연속 이어가고 있다.

전남 생명과학고는 2010학년도 신

군민장학재단, 5년간 67억 지역 교육발전 지원

고교 입학정원 넘치고 타지역 우수학생 전입도

입생 모집에서 150명의 정원에 190명이 지원함으로써 40명이 불합격할 정도로 전남지역 최고의 농업 전문고등학교로서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고 있다. 성전고도 매년 신입생이 증가, 2010년에는 기존의 1학년 1학급을 2학급으로 1학급을 더 증설하기 위해 전남도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관내 8개 중학교 3학년 10위권 이내 우수 학생들이 타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지

조성, 이 가운데 ▲명문학교 육성사업 31억1천만원 ▲영어마을 운영 13억4천만원 ▲장학금 3억8천400만원 ▲중3 학생 해외 어학연수 1억7천600만원 등 67억7천여만원을 강진군 지역 교육발전 사업에 꾸준한 투자를 해왔다.

강진군의 2008년도 자체 교육보조금 지원금 중 학생 1인당 보조금액은 83만8천원으로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 중에 1위이며,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에 들고 있다.

황주홍 군수는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인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영암 사회복지관 작품발표회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여가시간을 활용해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평생학습교육을 받은 여성 수강생들이 최근 복지관 대강당에서 건강댄스 등 작품발표회를 갖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는 테마로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여성 등 교육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솜씨를 선보였다. <영암군 제공>

전남사회복지사협 10년간 해외 자원봉사

印尼 ‘빵아레안’ 지역 구호활동·빈곤 줄이기

전남도 사회복지사협회(회장 윤동성)는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10년간 장기 해외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남도 사회복지사협회는 “잦은 자연 재난과 쓰나미 발생으로 재난상태인 인도네시아 반동 외곽 ‘빵아레안’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되는 지구촌, 희망! 아시아 2020 해외 봉사 장기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자원봉사 프로젝트는 초기에 한국의 전문 사회사업가를 파견해 사회사업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전수시키는 한편 현지 사회사업가를 한국에 초청, 훈련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사회사업의 전문성과 조직화를 향상시켜 2020년

에는 완전히 자립시키는 형태의 프로젝트이다. 1차년도인 2010년에는 사업비 7천만원을 투입해 1월 중 11일간의 일정으로 50명의 자원봉사를 파견해 실시한다.

윤동성 회장은 “재난과 빈곤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제3국가에 해외봉사를 통해 빈곤완화와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의 선진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을 제공, 사회복지자원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후원문의(061-743-5655)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덕충동에 새 여수 역사 준공

여수엑스포 방문 편해진다

여수시민의 애환이 서린 여수역이 공화동 시대를 접고 덕충동에 새 동지를 마련, 관광객들의 2012 여수 세계박람회장 방문이 한결 편리해졌다.

한국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지난 23일 여수시 덕충동 신역사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새 역사는 기존 여수역에서 직선거리로 600여m 떨어져 있으며 부지 16만㎡, 건물면적 4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기대된다.

신역사는 2012 여수 박람회의 핵심 교통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역사는 2012 여수 박람회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의 이미지에 맞게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배의 앞부

분을 형상화했다. 역사 전면부 광장은 시민과의 만남의 장소, 이벤트 장소 등으로 제공된다.

새 역사는 오는 2011년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이 완료되면 KTX가 투입돼 용산~여수간 소요시간이 현 5시간 13분에서 3시간 18분으로 2시간 단축되는 등 ‘2012 여수 박람회’의 핵심 교통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선의 종착역인 여수역은 일제시대인 1930년 첫 개통됐으며 역사는 내년 3월까지 철거돼 여수박람회 시설부지로 활용된다.

신역사는 2012 여수 박람회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의 이미지에 맞게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배의 앞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가우도 출렁다리 가설’

강진군 국제 공공디자인 ‘최우수상’

강진군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와 ‘가우도 출렁다리 가설’(사진) 디자인이 ‘국제 공공디자인 대상 2009’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12개 부문중 6개 부문을 훤힐쳤다.

또 ‘강진청자축제 홍보포스터’와 ‘강진군 공공디자인 마스터 플랜’이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하멜 전시관 신축’이 주니어 대상(국회 안전디자인포럼 공동 대표상)을 차지하고, ‘강진들 황금한우 홍보



포스터’가 주니어 대상(한국토지주택공사상)을 수상했다.

(제)한국 공공디자인 지역지원단(이사장 윤종영) 주최로 열리는 ‘국제 공공디자인 대상’은 공공 분야에 대한 질적 수준향상과 창의성 있는 디자인 개선을 유도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국제 공공디자인 대상 2009’ 수상작품에는 인증마크가 주어지며, 해당 자체는 내년 1월 20일 국회

의사당에서 열리는 ‘국제 공공디자인 대상’ 시상식 이후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함평 최첨단 유기질 비료공장 준공

함평에 최첨단 유기질 비료공장이 들어섰다.

함평군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 유기질비료 생산에 앞장선 효성 오앤비㈜(대표이사 박태현)의 호남공장이 지난 22일 함평 학교농공단지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효성 오앤비㈜는 70억원을 투입해 총 9천㎡ 부지에 3천164㎡ 규모의 유기질 비료 생산공장을 신축했다. 8층 높이의 주 공장에는 원료의 선별부터 분쇄, 배합, 성형, 냉각, 자동포장, 로

세 알 굴

“쌀 브랜드 육성 소득작목 확대”

김근진 강진읍 농협조합장



조합원에게 신뢰받고, 효율적인 강진농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무투표 당선돼 연임에 성공한 김근진(55) 강진읍 농협조합장은 “명품 쌀 브랜드 육성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농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복农자, 빙과 등 소득작목 재배를 확대하겠다”며

“조합원의 복지환원 사업으로 조합원 공원묘지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에게 신뢰받고, 효율적인 강진농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무투표 당선돼 연임에 성공한 김근진(55) 강진읍 농협조합장은 “명품 쌀 브랜드 육성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농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복农자, 빙과 등 소득작목 재배를 확대하겠다”며

“조합원의 복지환원 사업으로 조합원 공원묘지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에게 신뢰받고, 효율적인 강진농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무투표 당선돼 연임에 성공한 김근진(55) 강진읍 농협조합장은 “명품 쌀 브랜드 육성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농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복农자, 빙과 등 소득작목 재배를 확대하겠다”며

“조합원의 복지환원 사업으로 조합원 공원묘지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에게 신뢰받고, 효율적인 강진농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무투표 당선돼 연임에 성공한 김근진(55) 강진읍 농협조합장은 “명품 쌀 브랜드 육성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농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복农자, 빙과 등 소득작목 재배를 확대하겠다”며

“조합원의 복지환원 사업으로 조합원 공원묘지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에게 신뢰받고, 효율적인 강진농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무투표 당선돼 연임에 성공한 김근진(55) 강진읍 농협조합장은 “명품 쌀 브랜드 육성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농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복农자, 빙과 등 소득작목 재배를 확대하겠다”며

“조합원의 복지환원 사업으로 조합원 공원묘지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에게 신뢰받고, 효율적인 강진농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무투표 당선돼 연임에 성공한 김근진(55) 강진읍 농협조합장은 “명품 쌀 브랜드 육성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농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복农자, 빙과 등 소득작목 재배를 확대하겠다”며

“조합원의 복지환원 사업으로 조합원 공원묘지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에게 신뢰받고, 효율적인 강진농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무투표 당선돼 연임에 성공한 김근진(55) 강진읍 농협조합장은 “명품 쌀 브랜드 육성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농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복农자, 빙과 등 소득작목 재배를 확대하겠다”며

“조합원의 복지환원 사업으로 조합원 공원묘지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에게 신뢰받고, 효율적인 강진농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무투표 당선돼 연임에 성공한 김근진(55) 강진읍 농협조합장은 “명품 쌀 브랜드 육성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농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복农자, 빙과 등 소득작목 재배를 확대하겠다”며

“조합원의 복지환원 사업으로 조합원 공원묘지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에게 신뢰받고, 효율적인 강진농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무투표 당선돼 연임에 성공한 김근진(55) 강진읍 농협조합장은 “명품 쌀 브랜드 육성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농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복农자, 빙과 등 소득작목 재배를 확대하겠다”며

“조합원의 복지환원 사업으로 조합원 공원묘지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에게 신뢰받고, 효율적인 강진농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무투표 당선돼 연임에 성공한 김근진(55) 강진읍 농협조합장은 “명품 쌀 브랜드 육성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농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복农자, 빙과 등 소득작목 재배를 확대하겠다”며

“조합원의 복지환원 사업으로 조합원 공원묘지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에게 신뢰받고, 효율적인 강진농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무투표 당선돼 연임에 성공한 김근진(55) 강진읍 농협조합장은 “명품 쌀 브랜드 육성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농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복农자, 빙과 등 소득작목 재배를 확대하겠다”며

“조합원의 복지환원 사업으로 조합원 공원묘지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에게 신뢰받고, 효율적인 강진농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무투표 당선돼 연임에 성공한 김근진(55) 강진읍 농협조합장은 “명품 쌀 브랜드 육성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농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복农자, 빙과 등 소득작목 재배를 확대하겠다”며

“조합원의 복지환원 사업으로 조합원 공원묘지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에게 신뢰받고, 효율적인 강진농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무투표 당선돼 연임에 성공한 김근진(55) 강진읍 농협조합장은 “명품 쌀 브랜드 육성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농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복农자, 빙과 등 소득작목 재배를 확대하겠다”며

“조합원의 복지환원 사업으로 조합원 공원묘지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에게 신뢰받고, 효율적인 강진농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무투표 당선돼 연임에 성공한 김근진(55) 강진읍 농협조합장은 “명품 쌀 브랜드 육성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농가 소득증